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2020. 7. 1. / (총 11매)		
배 포 일			
매개체분석과	과 장	이 희 일	043-719-8560
	담당자	이 욱 교	043-719-8562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 장	김 미 영	043-719-7160
	담당자	권 정 란	043-719-7165

말라리아 감염모기 확인에 따른 매개체 방제 강화

- ◇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체 방제 강화와 매개모기 물림 주의 당부
 -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 유문등 가동 및 주변 잔류분무 실시
 - 환자발생지역 반경 500m 집중매개체 방제(주 2회 이상, 2주 간 실시)
 - 국내 말라리아 발생지역(인천 및 경기·강원 북부) 거주·방문 시에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 위험지역에서는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는 전체적으로 흑색의 중형(中形)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으며, 휴식 시 복부를 40~50°의 각이 되도록 치켜들고 앉으며, 주둥이와 촉수가 길고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함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

○ 국내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4~10월)* 중 25주차 (6.14.~6.20.)에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 5개체 (1 pool)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주 빨리(군부대 지역 제외) 발견되었다. <붙임 1 참조>

*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해 인천, 경기, 강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부대와 협조하여 51개 조사 지점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밀도 및 원충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사업

□ 말라리아는 환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모기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 차단이 중요하다.**

○ 이에 따라, 매개모기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 주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방제와 축사 주변의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했고,

-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감염모기 제거를 위하여 거주지 반경 500m 범위에 대한 집중방제(주2회 이상, 2주간) 실시했다.

○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팔 착용 및 기피제 활용을 권장하며,

- 환자로부터 모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의 경우 **관련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등 개인보호와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 한편,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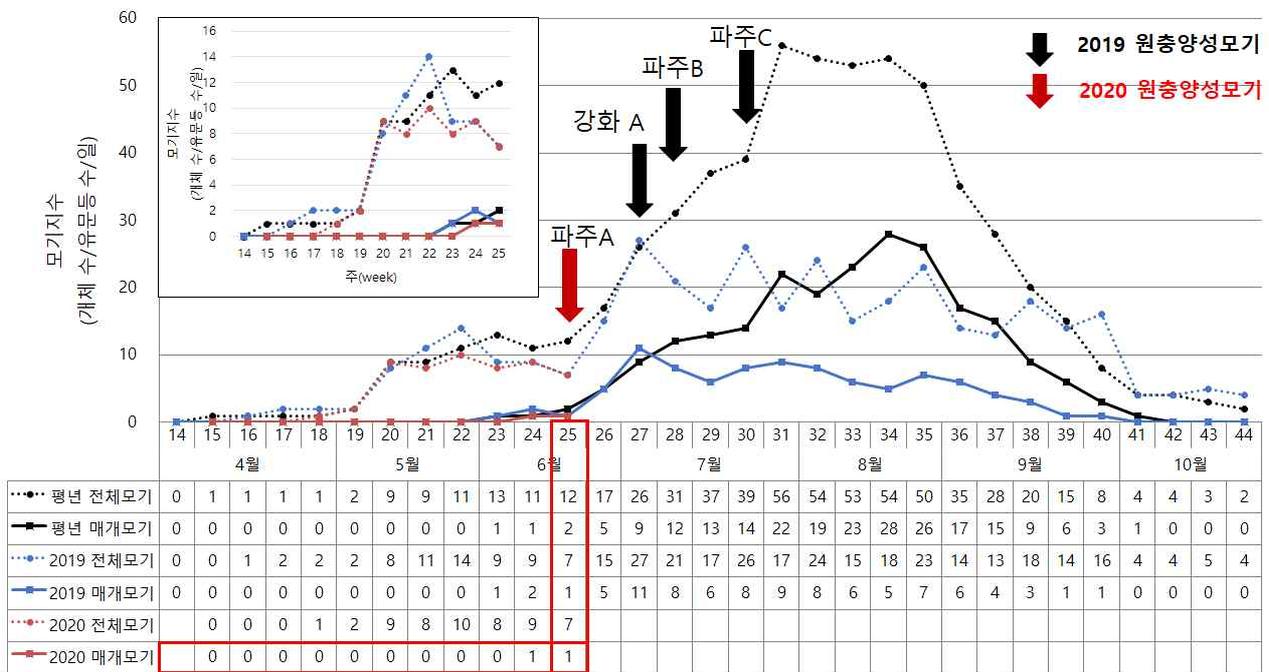
- <붙임> 1. 국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현황
2. 말라리아 매개모기 피하기 요령(4가지)
3.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2019년)
4. 말라리아 감염예방수칙
5. 말라리아 Q&A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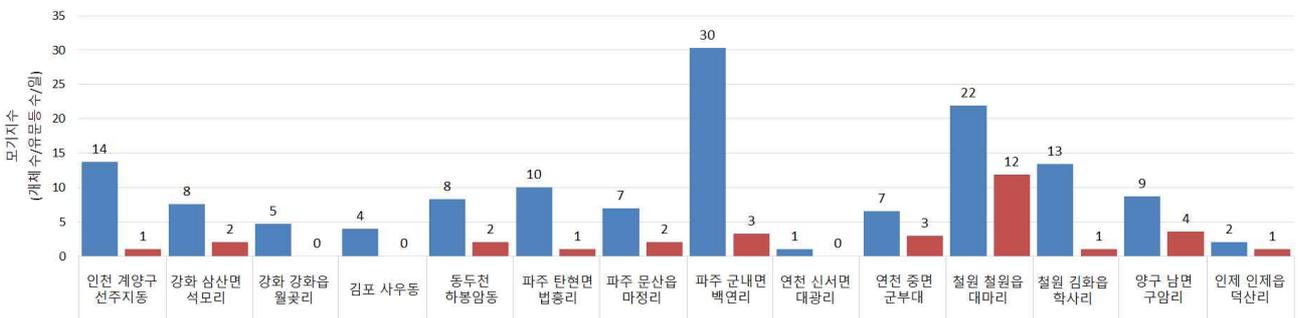
국내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현황

□ 말라리아 매개모기 25주차(06.14~06.20) 감시 현황

- (매개모기) 평균 1개체로 평년(2014~2019년) 2개체 대비 1개체 감소 '19년과 동일
- (전체모기) 평균 7개체로 평년 12개체 대비 5개체 감소한 반면 '19년과 동일
- 원충감염모기 확인 현황(군부대 지역 제외)



○ 주요지역 매개모기 채집 결과 (모기지수; Trap Index)



붙임 2

말라리아 매개모기 피하기 요령 (4가지)

가정에서 모기 피하기 요령

제1장 여름철!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모기 물림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래의 「4대 중요해요!」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주 1회 집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웅덩이 등 물이 고인 장소를 점검하여 유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기 서식처 관리

둘째, 야외에서 운동을 마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땀 등으로 더 많이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것이 모기 물림예방에 중요해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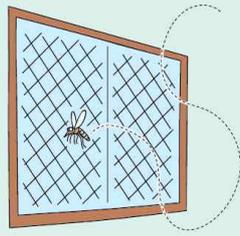


운동 후 샤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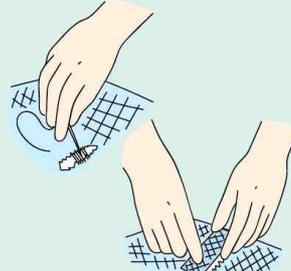


운동 후 샤워

넷째,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취침전 모기장 사용, 방충망 점검이 **중요해요!**



방충망 처리



방충망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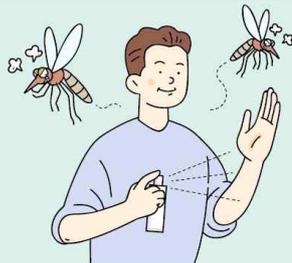


모기장 미사용



모기장 사용

넷째, 야간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처리 및 의복으로 노출된 부위를 보호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피제 처리장면



상처부위나 얼굴주변에 사용 자제



짧은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전



긴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후

붙임 3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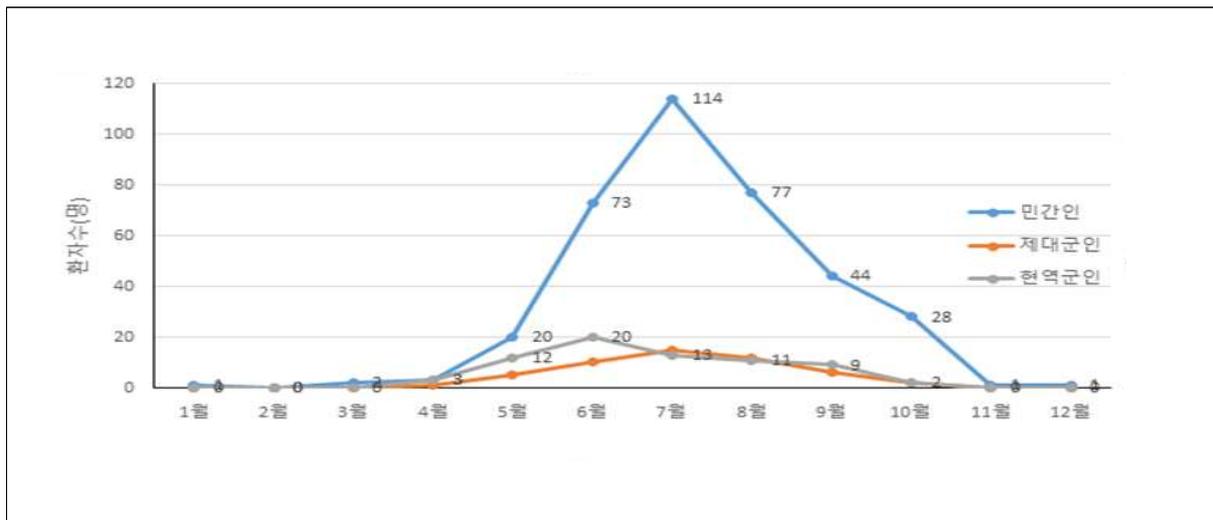
□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건) 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으로 환자 발생 감소하여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한 이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600명 수준 유지

<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 2009-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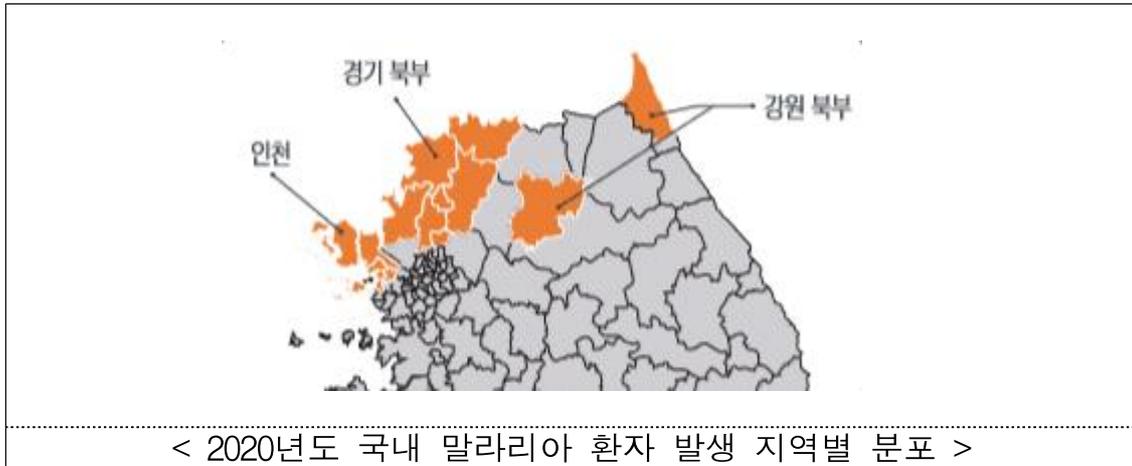
구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345	1,772	826	542	445	638	699	673	515	576	559	
국내 발생	민간인	639	996	323	330	227	402	361	307	280	338	364
	군인	680	725	439	159	158	156	267	295	156	163	121
	소계	1,319	1,721	762	489	385	558	628	602	436	501	485
해외유입	26	51	64	53	60	80	71	71	79	75	74	

- * 국내 발생은 모두 삼일열말라리아, 해외유입의 경우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말라리아임
- * 2019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 2019년도 국내 말라리아 월별/직업별 발생 추이 >

-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주로 말라리아에 감염 되는 것으로 추정



< 2020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지역 >

분류 지역	유형지역	경계지역
인천	강화군(10) 강화읍, 교동면, 길상면, 삼산면, 서도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하점면, 화도면.	강화군(4) 내가면, 대곶면, 불은면, 양사면
	계양구(4) 계산동, 병방동, 선주지동, 좌전동	남동구(1) 간석동
	남동구(3) 구월동, 논현동, 만수동	동구(1) 화수동
	미추홀구(1) 용현동	미추홀구(2) 주안동, 학익동
	부평구(1) 부평동	부평구(2) 부개동, 산곡동
	서구(11) 가정동, 가좌동, 경서동, 금곡동, 당리동, 마천동, 팔로동, 심곡동, 오류동, 원창동, 청라동.	서구(6) 검암동, 대곡동, 백석동, 연희동, 왕길동, 원당동
	연수구(3)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연수구(1) 옥련동
	용진군(2) 북도면, 연평면	용진군(3) 덕적면, 백령면, 자월면
	중구(5) 덕교동, 북성동, 운서동, 을왕동, 중산동	중구(4) 신흥동, 운남동, 운북동, 황동
	가평군(4) 가평읍, 북면, 조종면, 청평면.	가평군(2) 상면, 살악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9) 고양동, 동산동, 성사동, 신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행신동	고양시 덕양구(10) 관산동, 내유동, 능곡동, 대지동, 도내동, 삼송동, 토당동, 행주동, 화전동, 화정동
	고양시 일산동구(6) 마두동, 석사동, 갈현동, 정발산, 중산동, 풍산동	고양시 일산동구(6) 백석동, 사리현동, 철문동, 성석동, 정발산동, 풍동
	고양시 일산서구(5) 가좌동, 대화동, 덕이동, 일산동, 탄현동	고양시 일산서구(2) 범곡동, 주엽동
	김포시(12) 감정동, 걸포동, 고촌읍, 구래동, 대곶면, 북면동, 양촌읍, 운양동, 월곶면, 장기동, 동진읍, 하성면	김포시(3) 마산동, 사수동, 풍무동
	남양주시(4) 별내면, 오남읍, 와부읍, 조안면	남양주시(5) 별내동, 이패동, 일패동, 진접읍, 호평동
	동두천시(1) 지행동	동두천시(4) 상봉암동, 상패동, 송내동, 하봉암동
	양주시(9) 고읍동, 광사동, 남면, 백석읍, 산북동, 삼송동, 유양동, 읍정동, 장흥면	양주시(3) 광적면, 풍양동, 은현면
	연천군(10) 근남면, 백학면, 신서면, 연천읍, 왕징면, 장남면, 진곡읍, 정곡읍, 중면, 창산면	양평군(1) 개군면
	의정부시(4) 가농동, 민락동, 용현동, 호원동	연천군(1) 미산면
	파주시(8) 광탄면, 교하동, 군내면, 금촌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문산읍	의정부시(2) 고산동, 용현동
강원	고성군(2) 간성읍, 거진읍	고성군(1) 현내면
	철원군(5) 갈말읍, 근남면, 동송읍, 서면, 철원읍	인제군(1) 북면
	춘천시(1) 송암동	철원군(3) 관인면, 근북면, 김화읍

지역	주의지역 (30)	분류
인천(10)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용진군, 중구	
경기(13)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7)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붙임 4

말라리아 감염예방수칙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

시 기	예 방 법
여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여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단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여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 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붙임 5

말라리아 Q&A

Q 1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등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Q 2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발한 등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열발작이 가장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차이가 있음

Q 3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과중성 혈관내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 할 수 있습니다.

Q 4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내 위험지역은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경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5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및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국내 말라리아 현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을 현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현혈 및 혈소판성분현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현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현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